

요절한 시인들의 치열한 삶과 빛나는 시

비극에 몸을 대신 시인들

우대식 지음

1989년 5월 30일 발행된 '입 속의 검은 잎'이라는 시집이 있다. 이 시집이 문청들에게 던진 충격파는 대단했다. "이 땅의 문학적 풍토에서 어떻게 저 같은 시들을 쓸 수 있었는가"하는 경이로움이였다. 바로 시인 기형도의 유고시집이다. 기형도(1960-1989). 부친 기우민 씨와 모친 장옥순 씨 사이의 3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요절한 천재시인이었다. 황해도 벽성군이 고향인 부친은 6·25때 연평도로 이주했으며 이후 섬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다. 부친이 중풍으로 쓰러지고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면서 가난은 늘 그를 따랐다. 중앙일보 기자로 근무 중이었던 198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안개'가 당선돼 창작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1989년 3월 6일 심야극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된다. 시인은 뇌졸중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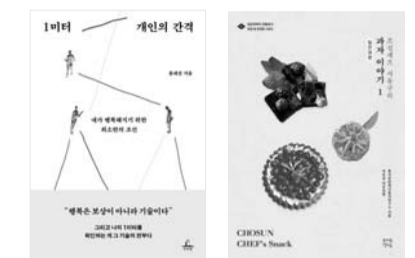
추정된다는 것이 담당자의 소견이었다. 천재는 요절한다는 말이 있다. 아마도 시인 기형도를 두고 하는 말인 듯하다. 기형도 외에도 많은 시인들이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아마도 그들에게 시는 '생의 환희이며 살아 가는 이유'였을 터다. 요절한 시인들을 조명하는 우대식 시인의 책 '비극에 몸을 대신 시인들'을 읽는다는 것은 쓸쓸하다. '요절한 천재 시인들을 찾아서'라는 부제부터 무겁게 다가온다. '현대시학'으로 등단해 여러 편의 시집을 내고 현재 송실대 문예창작과 강사인 그는 저자는 요절 시인들의 고향과 인연이 있는 공간을 찾아 1만km에 이르는 여정을 펼쳤다. "사람살이가 늘 상처투성이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마는 시인들만큼 미는

의 바늘로 상처를 뉘어내는 사람들도 드물 것이다. 빛나는 죽음의 속수들이 향하는 행로를 지켜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죽은 시인과 죽지 않은 시를 동시에 만나는 순간의 벅찬 '어처구니나'를 더더욱 이 작업 안으로 몰아붙였다." 저자는 기형도 시인 외에도 여림·이경록·김민부·김용작·원희석·임흥재·송유하·박석수·이현우 시인 등을 불러낸다. 책을 쓰기 위해 비무장지대 가까운 파주의 통일동산에서부터 땅끝 완도까지 곳곳을 누비는 여정을 감행했다. 이들 시인들의 죽음의 이유와 원인은 각기 다르다. 그럼에도 공통점이 있다. "자신의 삶을 창조적 에너지로 밀어올려 결국 휘어 부러뜨렸다"는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이 생각만큼 길지 않았더라는 사실을 예견이라도 하듯 짧은 시간 치열하게 창작에 매달렸다. 저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시인들이지만 이들의 작품 수준은 매우 높았다고 본다. 39세에 타계한 근산 출신 이연주

시인의 눈빛은 아픔과 처연함을 준다. 그녀를 추억할 수 있는 빨대 안경을 쓴 사진과 "지독한 삶의 냄새로부터/ 쉬고 싶다"라는 시가 주는 울림은 쓸쓸하다 못해 폐부를 찌른다. 199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던 여림 시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그에게선 바다가 보이는 고향 장승포의 이미지가 어른거린다. 그럼에도 파스하다. "포장을 걸으면 환하고 따뜻한 길/ 좁 전에 내린 것은 눈이 아니라 벌이였구나/ 옷자락에 묻어나는 별들의 시금과리/ 멀리 집의 불빛이 소혹성처럼 동글다" 요절한 시인들의 시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돌아보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정호승 시인은 추천사에서 "죽음의 언저리를 산책했던 예민한 영혼들의 치열했던 삶과 빛나는 시는,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평한다. <새움·1만4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1미터 개인의 간격=스피노자의 철학을 바탕으로 오늘날 개인으로 사는 기술에 대해 풀어냈다. 1미터라는 단위를 상징으로 삼아 나다움의 범위와 행복 그리고 타인과의 공존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인은 타인도 나와 같음을 인정할 존재이며, 개인이 개인으로 존중받고 또 존중하며 살기 위해서는 1미터라는 경계의 안팎을 넘나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추수밭·1만5000원>



▲조선세프 서유구의 과거이야기 1= '조선세프 서유구' 시리즈 여섯 번째 책 '밀전과편'.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인 풍석 서유구의 대표 저작 '임원경제지'의 여덟 번째 지(志)인 '정조지' 권 3의 과정지류 중 일부를 연구해 복원했다. 총 42가지 전통음식을 수록했으며 '정조지' 표적 원문 및 번역문과 함께 이를 만드는 과정을 담은 사진 및 조리 방법, 영양 효과 등도 함께 담았다. <자연경실·2만원>

▲조선 지식인의 국가경영법=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자인 24명이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구현해 냈는지에 주목했다. 총 5부로 구성됐으며, 조선 건국을 제도의 건국으로 이끈 주역 정도전, 금기시되던 양명학을 통해 습득한 유연한 사고로 전쟁을 치른 류성룡, 신념은



리에 충실했던 송시열 등 우리에게 익숙한 조선의 대표 지식인들을 만날 수 있다. <옥당복스·1만7000원> ▲함께 부셔질 그대가 있다면=박형준 평론가의 인문예세이다. '감수성(sensibility)'의 힘을 강조한 그는 문학과 예술, 그리고 인문학이 우리 삶의 억압적 감성 구조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방법이 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이들이 문학을 잘 아는 것보다 '문학적인 삶'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며, 그간 연재한 글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호밀밭·1만3800원>

인류는 왜 빨강에 열광하는가

빨강의 역사

미셸 파스투로 지음·고선일 번역

당신은 '빨강'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가. 중세 문장학의 대가이자 색채학 전문가로 꼽히는 미셸 파스투로는 지난 2000년 발간한 '파랑의 역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후 검정, 초록, 노랑의 역사 등을 연이어 발간했다. 이번엔 번역 출간된 '빨강의 역사-인류는 왜 빨강에 열광하는가'는 고대 벽화부터 레드 카펫까지 인류와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한 '빨강'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룬 책이다. 저자는 색의 역사를 다양한 역사적 사실과 풍부한 인문 사회학적 지식을 곁들여 흥미롭게 소개한다.



저자는 이 책이 "일상 속, 사회적 관행, 기술적 응용, 종교적 율리, 예술적 창조 등을 통해 나타나는 어휘에서 상징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빨강이라는 색을 연구한 역사서"라고 말한다.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분했는데 '원초의 색', '선호하는 색', '수상한 색', '위험한 색'이라는 각각의 카테고리 '빨강'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잘 보여준다. 저자에 따르면 빨강은 색의 원형으로 인간이 처음으로 제어하고 만들었으며 재색한 색이다.

고대사회에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우월한 색이었다. 주거 공간은 물론이고 가구류, 의복, 장신구, 보석 등에 많이 사용됐으며 각종 공인이나 제의에서 권력과 신성함과도 연계해 풍요로운 상징의 의미를 가졌다. 하지만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사치 단속령과 종교 개혁에 의해 전파된 색에 대한 새로운 율리에 따라 '지나치게 눈에 잘 띄고 값이 너무 비싸고 정숙하지 못하며 비도덕적이고 퇴폐적인 색'으로 낙인 찍히 퇴조되고 만다. '색의 황금기'로 불리던 18세기 역시 빨강에게는 불행한 시기였다. 색소 물질에 관한 화학적 연구가 발전하면서 색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계몽주의 시대였던 당시의 승자는 오래 전부터 빨강과 대립되는 색으로 여겨졌던 '파랑'이었다.

현대 시대의 빨강은 경고와 규정, 금기의 역할을 한다. 소방차, 소화기 등이 대표적이다. 언어에서도 '적색경보', '레드존', '적자' 등의 단어에서 경고의 이미지를 만난다. 빨강은 처벌을 표시하는 역할도 한다. 범죄자에게 빨간색 낙인을 찍거나 시뮬레이션된 빨간색 펜으로 수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물론 빨강은 긍정적 의미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여당기는 역할도 한다. 품질 보증 표시로 사용되는 '레드 라벨'이나 '세일 상품'을 알리는 빨간색 가격 표시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광고에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색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레드 카펫'은 빨강의 권위를 보여주는 사례다. 고대 소매 동굴의 어린이벽화, 로트레크의 '물랭레리의 살롱', 레닌과 공산당의 선전 포스터, 마크 로스코의 작품까지 '빨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들려주는 도판과 자료 사진들이 책을 풍성하게 만든다. <미술문화·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어린이·청소년 책



▲넌 어떻게 춤을 추니?=미국 작가 티라 헤더는 춤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솔직한 몸짓으로, 마음 가는 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서 내면의 감정을 느끼고, 온몸의 감각을 깨운다. 책은 정형화된 동작이나 순서가 있는 춤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느끼며 자유롭게 춤을 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나게 된다고 말한다. <책과콩나무·1만2000원>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책과 살림살이를 마당에 내어 말하는 피스한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고즈넉한 마을 풍경을 따라 옛사람들의 소박한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사계절·1만3000원> ▲황금 글들의 비밀=돌개바람 48권. 글쓰기를 질해서 어른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평범한 아이들의 이야기다. 윤솔이는 한글 모르는 재벌이를 위해 알람장도 대신 써주고 동화책도 읽어주는 착한 어린이다. 어느 글짓기 시간, 윤솔이는 한글도 모르는 재벌이가 특목 내달은 기발한 표현을 그대로 받아쓰고, 놀랍게도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바람의아이들·1만1000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장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시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나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光州日報 광고문의 020-227-6900

<p>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p> <p>주식회사 용주(이하 '갑')와 (자) 동천도진 주식회사 (이하 '을')는(은) 2020년 9월 10일 개최된 각 주주 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상법 제530조의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갑'의 해당 주주에서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p>2020년 9월 11일 "갑" 주식회사 용주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시동길 36 대표이사 박노수 "을" 동천도진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지침길 19-26 대표이사 주태봉</p>	<p>상속한정승인공고</p> <p>• 피상속인: 망 김용태(30910-XXXXXX) • 최후주주: 광주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107동 1305호(전원동, 대주아파트) 피상속인 망 김용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자정법원 2020년 10월 10일 1095호로 신청하여 2020년 9월 7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마바라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p> <p>2020년 9월 11일 • 상속인: 김성필(71112-XXXXXX) 광주 남구 서문대로678번길 7 107동 1305호(전원동, 대주아파트) • 신고기간: 2020. 9. 11. ~ 2020. 11. 20. • 채권신고처: 상속인 김성필의 주소</p>	<p>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p> <p>주식회사 한신전기(이하 '갑')와 한타와 주식회사 명하(이하 '을')는 2020년 9월 9일 개최된 각 주주 총회결의로 '갑'의 영업 중 일부인 전기공사업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되 분할되는 부분의 '갑'의 권리와무는 '을'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이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p> <p>2020. 9. 11. "갑" 주식회사 태인테크 전라남도 광양시 유곡면 삼곡로 12. 1층 대표이사 이병석 "을" 주식회사 신진테크 전라남도 산안군 지도읍 서촌길 16. 2층 대표이사 박만우</p>
<p>분할합병공고</p> <p>2020년 9월 10일 각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성전력 주식회사(이하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예한 주식회사(이하 '을')와 분할합병(합)의 전기공사업부분의 권리와무는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내로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주제출계서도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p> <p>2020년 9월 11일 갑 한성전력주식회사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교로 5 대표이사 황상연 을 예한주식회사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천로11길 37 대표이사 이한울</p>	<p>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익 및 주권제출공고)</p> <p>주식회사 미래이파워(이하 '갑')와 강트윈테크 주식회사 (이하 '을')는 2020년 09월 10일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의 재산(영업)의 일부(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전남-01794호)를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갑]이 합병하고 [을]은 존속하되 분할된 부분에 대한 [을]의 자산 및 부채등 권리의무 일체를 [갑]이 승계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들의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본 공고 게재일 당일(9월 11일) 내에 관계 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공고 및 최고합니다.</p> <p>2020년 09월 11일 "갑" 주식회사 미래이파워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777-42 대표이사 김길식 "을" 강트윈테크주식회사 전라남도 담양군 창평면 창평로 777-42 대표이사 김병균</p>	<p>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p> <p>주식회사 한신전기(이하 '갑')와 한타와 주식회사 명하(이하 '을')는 2020년 09월 10일 개최된 각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재산의 일부인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에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며, 단, 상법 제530조의 제3항에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 받은 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주주는 본 공고 게재일(9월 11일)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본점에 제출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공고함.</p> <p>2020년 09월 11일 "갑" 주 소: 전라남도 산안군 양면면 경전길 7-29 회 사 명: 주식회사 한신전기 대표이사: 박희석 "을" 주 소: 전라남도 장성군 황평면 강변로 432 회 사 명: 주식회사 명하 대표이사: 함종남</p>

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9월19일(토)
▲광주금당신회 9월19일(토) 충북 포암산·만수봉·용암산, 봉선동 롯데마트(06:10, 진월동식자재마트(06:20, 영주체육관(06:30, 한국병원(06:40, 문예회관(06:50, 비엔날레

주자정일구 07:00 * 다음카페 광주금당신회 ☎ 010 6294 2678, 010 320 2284
▲광주호신회 9월19일(토) 전북 순창, 남원, 순대봉, 체계산 출렁다리, 풍암동 롯데마트 7주자정 출발(06:30, 롯데백화점(07:00, 예술회관 후문 07:15 * 다음카페 광주호신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